

## 바다의 생활/육지의 생활

### 시나가와 용수

시나가와 지역의 마을들은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 시나가와 용수 개발이었습니다. 다마군의 사카이무라 마을(지금의 도쿄도 무사시노시)에서 다마가와 용수로부터 나누어진 시나가와 용수는 1669년에 완공되어, 총 길이 약 27.5km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 시나가와의 농업

시나가와 용수가 완공됨으로써 농촌이 대부분이었던 시나가와에도 특산물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나가와의 양파, 오이무라 마을의 당근, 도고시무라 마을의 죽순입니다. 죽순은 도고시무라 마을에 별장을 가진 해운업자 야마지 지로베에가 1789년경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에서 맹종죽을 들여와 재배한 것이 시초입니다.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가 굉장한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 시나가와 김

김은 시나가와우라~하네다우라 일대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김 양식은 1670년경 시나가와우라에서 양식 방법을 고안하여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차츰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생산량도 늘어, 쇼군(무신 정권인 막부의 수장) 가문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시나가와 김은 아사쿠사로 운반되어, 에도 명산 아사쿠사 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졌고 전국에 알려져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게타부네(桁船) 배

실물의 1/6 모형 제작: 고지마 노부키

시나가와의 어업은 료시마치(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를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어업에 사용된 배는 돛의 힘으로 배가 옆으로 가며, 저인망을 5~9 개 끌어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횡목(일본어로 게타(桁))을 끼운 저인망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 배를 게타부네(桁船)라고 하며, 그 어법을 게타부네 어법이라고 합니다. 시나가와우라의 게타부네 어업은 다른 어촌보다 활발했는데, 19 세기 중반, 포대 축조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중하 등을 잡는 새우 저인망이 고안되었는데, 어구를 둘러싸고 다른 마을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_04\_01

회반죽을 흙손으로 볼록하게 조형한 그림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의 공적’ (복제)

원사료: 요리키 신사 소장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구(舊) 시나가와우라(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의 요리키 신사의 본전 문안쪽에 있는 것으로 미장이의 명공 이즈노 조하치(1815~1889)의 작품.

왼쪽 문의 윗부분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랫부분에는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 오른쪽 문에는 사루타히코노 미코토※를 입체감 있게 제작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태양을 지배하는 신으로, 최고 지위의 여신)는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난폭함 때문에 동굴(아마노이와야) 속에 숨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신들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동굴 앞에서 연회를 열고,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가 익살스러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춤을 본 신들이 웃는 소리에 이끌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바위 문을 조금 연 사이에 밖으로 끌려 나와 세상은 다시금 빛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상계(다카마노하라)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을 때, 사루타히코노 미코토에게 길안내를 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아메노우즈메노 미코토의

	<p>이러한 공적을 표현한 것입니다.</p>
<p>1_04_02</p> 	<p>어촌에 세워진 고찰(高札)</p> <p>1714 년</p> <p>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p> <p>해상 항로의 발달과 함께 해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711 년에 막부는 전국의 어촌에 고찰※을 세우고 대책을 널리 알렸습니다.</p> <p>시나가와우라(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의 항만 고찰은 2 점이 요리키 신사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1712 년의 것으로, 에도성에 바치는 쌀을 수송하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의 조치 방법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1714 년의 것으로, 밀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료시마치의 고찰장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고찰(高札): 법령이나 금지 조치를 적은 판. 고찰을 세워두는 장소를 고찰장이라고 하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했습니다.</p>

<p>1_04_03</p> 	<p>시나가와 용수, 지조노쓰지 사거리 모형</p> <p>시나가와 용수가 메구로가와 강 방면과 다치아이가와 강 방면으로 나누어진 '지조노쓰지 사거리'(현재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야마 2 초메의 우시로지 사거리)의 상상 모형입니다. 사거리의 이름은 현재에도 남아있는 아사히 지조(지장보살)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p>
<p>1_04_04</p> 	<p>김 헌상 함</p> <p>메이지 시대 추정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도쿠가와 장군가 및 장군가 선조의 위패를 모신 절인 간에이지 절(도쿄도 다이토구)에 건조 김을 헌상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p>

1\_04\_05



노리게타(김 나막신)

에도 시대부터 쇼와 37년(1962)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김을 재배하기 위해 바닷속에  
히비(김이나 굴 등의 양식에서  
포자를 부착시키기 위해 바닷속에  
세우는 가지가 있는 대나무)를 세울  
때나 김을 채취할 때에 신던  
나막신입니다. 이것은 조금 깊은  
해역에서 작업을 할 때에 신던  
것입니다.

1\_04\_06



스다레(발)

에도 시대부터 쇼와 37년(1962)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얇은 사각형으로 뜯은 생김을 붙여  
햇볕이나 불로 건조시켰습니다. 발은  
격자 모양의 나무 틀인 와쿠보시에  
걸어 사용하였습니다.